

본문 : 요한복음 16 장 1-11 절

제목 :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야

1. 실족할 거라는 걸 미리 알려줄게

제가 미네소타에 오기 전에 저희 교회 분들이 무척 강조하셨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겨울이 매우 춥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오게 될 목사님과 그 가정이 이곳 미네소타의 혹독한 겨울 추위를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많은 분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애들은 한 겨울에도 옷통을 벗고 자는 매우 열이 많은 아이들입니다. 겨울을 좋아하고 겨울을 즐기는 가족이지요. 많은 분들의 걱정과는 달리 저희는 겨울을 잘 이겨왔습니다. 그래도 겨울이 무척 추워요 라는 그 말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추위도 이 정도는 이겨 낼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러니까 한 시간이 안 되어 대제사장들이 보낸 병사들에 의해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13 장에서 이미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만은 배반하지 않을 거라 자신있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공동체는 급격하게 분열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마음을 잡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14 장부터 16 장까지 긴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된다고 부탁하셨죠. 오늘 본문 16 장에서 예수님은 한 술 더 떠서 너희는 실족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넘어지다 라는 헬라말이 "skandalizo" 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 실족하게 하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다(to stumble, to fall away, to be offended)."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냥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버릴 정도로 근심이 가득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영어 단어 scandal 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스캔들을 들으면 우리도 거의 실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에서 뿌리 뽑힐 정도의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될 거라고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실족하게 된다는 것은 뜨거웠던 믿음과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살겠다고 살았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의심하는 상태로 빠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 한국의 국가적인 상황, 미국내 정치 경제적인 현실,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볼 때

도저히 하나님의 통치를 믿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을 실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하게 될 거라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단단했던 신뢰가 헐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2.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왜 실족할 수 밖에 없는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너희가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출교란 Ex-communication 인데 헬라 말로는 밖으로 라는 말과 회당이라는 말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회당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지역 사회에서 버림을 받는다는 말이죠. 사회적 보호막이 다 사라져 버린 상태가 출교입니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외톨이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사회적인 죽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사회적 죽음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죽이겠다는 자들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행위로 알고 달려들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와 연결하여 보면, 미움을 받게 될거야, 박해도 받게 될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출교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어. 점점 더 강도가 썰지고 있죠. 제자들은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3 년동안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보상은 못해 주실 망정 미움과 박해와 출교와 죽음이 닥칠 것이라니,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상상이 되나요?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거라는 거죠. 2 절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구약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말하는 자들은 구약 성경에 바탕을 두고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구약시대에 거짓 예언자를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섬기는 일’로 번역된 헬라어가 ‘latreia’인데 service 라는 뜻이죠. 그들은 거짓 예언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너희를 죽일 거라는 뜻입니다. 신약의 인물 중에 이런 인물이 한 명 있었죠?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바치는 예배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죽을 위협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3. 보혜사가 도와주실 거야

그럼에도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보혜사(parakletos)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혜사는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 입니다. Counselor, advocate, comforter 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무엇이 진짜 죄인지, 무엇이 진짜 심판인지를 알게 해 준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라트레이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죄라 생각했죠. 그들은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왜냐면 예수는 거짓 예언자이고 그 거짓 예언자를 믿는 자들은 나무에 달려 죽이는 것이 구약 성경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살인자들에게 하는 형벌인 나무 십자가에 거짓 예언자 예수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죄인인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심판자가 되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한 것이죠. 그런데 보혜사가 오시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옳은 심판인지에 대해 알려주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를 박해하고 죽인 자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줄 거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죄가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1500 년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만회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이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핍박하는 행위가 얼마나 잘 못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제자들이 잘 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거니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성령님이 비추시는 빛을 보고 눈이 멀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된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이킵니다.

4.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제발 떠나지 말라고 간절히 애원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고아처럼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야 그들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거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가야 제자들은 그제서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는 이유는 예수를 대신하여 그분의 삶을 실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주체적인 자아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주는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의 뜻은 두가지 의미라 할 수 있겠네요. 첫째는 제자들이 주체적인 자아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 단체 특방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25 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예수제자훈련(DTS)” 훈련을 함께 받았던 친구들이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만들어진 단톡방이었습니다. 25 년만에 뭉친 거라 서로 궁금한 것도 많고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모두 싱글이었는데, 이제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어 자녀들이 사춘기나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야기는 자녀 양육의 문제로 많이 흘러가더라구요. 자녀들이 큰 기도의 제목이었고, 자녀들 때문에 마음의 짐이 커 보였습니다. 다들 부모를 떠나 스스로의 가정을 이루고 자신도 부모가 되어서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내 자녀를 키워보는 것이 우리를 오히려 성장시키는 것이고 우리 삶에 오히려 큰 유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홀로서기가 오히려 우리를 더 자라게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 병장 시절에 4 개월 정도 군종병을 한 적 있습니다. 군종병이었던 내무실 고참이 제대하면서 맡게된 보직이었습니다. 대대급 교회에는 군목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군종병이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야 합니다. 주일에는 민간인 목사님과 장로님이 방문하여 예배를 인도해 주시지만 평소에는 군종병이 교회를 책임집니다. 그때 저는 기타를 배운 이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찬양인도를 처음 해보았고, 설교라는 것도 처음해 보았습니다. 새벽 4 시에는 교회로 가서 차를 끓여 초소들을 돌면서, 추위에 떠는 초병들을 위로하는 일도 했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니 무엇이든지 알아서 다 해야 했고, 그때 제 신앙이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 그게 제 인생에 첫번째 목회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면 너희가 알아서 다 해야 할거야. 하지만 걱정마,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실 거니까.

5. 고난이 오히려 유익입니다.

솔직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보혜사고 뭐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시는 그 슬픔과 허탈한 감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시간도 안 되어 그들은 실족하여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제자 곁을 떠나는 순간, 제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역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 앞에 놓인 미움과 박해와 출교와 죽음 당함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보혜사가 오시면 그들이 당하게 될 그 고난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갑자기 철판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안경을 쓴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안경을 쓰는 것이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중 3이 될때까지 안경을 안쓰고 버텼습니다. 시력이 0.1 까지 떨어지자 안경을 맞출 수 밖에 없었죠. 그런데 안경을 쓰고 세상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워보였죠. 내 앞에 있는 현실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그 세상을 보는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거죠.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안경을 끼는 것과 같다 생각해 봅니다. 내가 겪는 고난은 여전하지만 그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성령님을 통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김보현 형제님의 어머님 김정숙 권사님께서 번역하신 미우라 아야꼬의 에세이를 읽었습니다. 그 첫장에 "고난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더군요. <빙점>이라는 소설로 널리 알려진 미우라 아야꼬는 몸이 연약하였고 많은 병에 시달린 작가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탯줄이 목을 감고 나와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습니다. 스무 살에 폐결핵으로 척추카리에스라는 병을 얻어 13 년이나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중증 대상 포진으로 시달리고, 나중에는 직장암 수술까지 받아야 했죠. 그의 주위 사람들은 그런 불행해 보이는 그를 보며 질문했습니다. "무슨 부정을 탄 거 아니가요?", "신앙이 그리 좋은데 왜 병에 걸리지?", "아무것도 나쁜 일을 하지 않는데 왜 병에 걸리지?" 뭔가 나쁜 일을 해서 병에 걸렸다는 말들이죠. 사람들은 고난을 '벌'처럼 생각한 것이죠. 그녀를 위로해 주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9 장의 나면서부터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였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시편 119 편 71 절의 말씀도 그녀가 고난 가운데 큰 힘을 주었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 장 29 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것이 특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고난과 핍박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형태와 정도만 다를 뿐 고난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족하는 이도 생길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성령님은 이해할 마음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은 실족하게 될 거라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실족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성령님을 단단히 붙들고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어 근심을 밀어내고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그리스도를 즐겁게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